

		<h1>보도자료</h1> <p>2021. 8. 30.(월) 배포</p>			
보도일	2021. 8. 31.(화) 11:1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8. 31.(화) 11:1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예산담당관	담당자	과장 노진영 (☎ 044-203-6033) 사무관 유수민 (☎ 044-203-6034) 주무관 조현미 (☎ 044-203-6046)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 ◆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 ◆ 대학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위해 대학혁신지원 사업 등 확대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 ◆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 ◆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76조 4,645억 원 대비 12조 1,773억 원 증가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전년대비 증감 (B-A)	%
	본예산 (A)	제2회 추경	예산안 (B)		
총지출	76,464,481	83,024,448	88,641,806	12,177,325	15.9
(교부금, 유특 제외)	19,317,709	19,511,881	20,751,386	1,433,677	7.4
○ 예산	70,819,026	77,378,993	82,831,667	12,012,641	17.0
○ 기금	5,645,455	5,645,455	5,810,139	164,684	2.9
【교육분야】	70,970,674	77,530,641	82,915,071	11,944,397	16.8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55	65,100,982	69,834,946	11,197,491	1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9,595,796	64,300,769	11,070,768	20.8
▪ 고등교육	11,145,520	11,212,372	11,808,999	663,479	6.0
▪ 평생·직업교육	1,053,392	1,082,980	1,135,303	81,911	7.8
▪ 교육일반	134,307	134,307	135,823	1,516	1.1
【사회복지분야】	5,493,807	5,493,807	5,726,735	232,928	4.2
▪ 기초생활보장	103,013	103,013	122,168	19,155	18.6
▪ 공적연금	5,390,794	5,390,794	5,604,567	213,773	4.0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

□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①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②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원, ③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④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⑤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예산안 주요 내용

① 서민·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편성

○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대학생 100만 명 개개인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390만 원(+22만 원), 7, 8구간은 350만 원(7구간 +230만 원, 8구간 +282.5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수준

○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21) 3조 9,946억 원 → (2022 안) 4조 6,567억 원(+6,621억 원)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안 (단위 : 만 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021년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2022년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② 대학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확대

○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량강화와 인재 양성 고도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중액 편성하였다.

-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적정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 대학혁신지원(I유형, 일반재정지원) : (2021) 6,951억 원 → (2022 안) 7,350억 원(+399억 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 : (2021) 3,655억 원 → (2022 안) 3,880억 원(+225억 원)

- 또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기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 대학혁신지원(II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 (2021) - → (2022 안) 600억 원(+600억 원)

○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2012~2016, LINC) →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2017~2021, LINC+)

※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 (2021) 3,902억 원 → (2022 안) 4,070억 원(+168억 원)

○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신기술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지속 지원하고,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 ⑥ 실감미디어,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

- 교육과정 추가개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 확대·강화 등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연합체(컨소시엄)에 혜택을 부여하여 내실화를 도모한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 (2021) 828억 원 → (2022 안) 890억 원(+62억 원)

○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운영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2021) 1,710억 원(4개 플랫폼) → (2022 안) 2,040억 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 1개 플랫폼 신규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별)(+330억 원)

③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초·중·고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소그룹(3~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 활용하여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하였다.

※ 교육급여 : (2021) 1,030억 원 → (2022 안) 1,222억 원, 교육급여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안(2021→2022) : (초) 286→331천 원, (중) 376→466천 원, (고) 448→554천 원

- 또한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 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1인당 10만 원)하여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 : (2021) - → (2022 안) 101억 원(총 사업비 315억 원 국고 30% 교부금 70% 부담하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재비·EBS콘텐츠 비용 지원)

④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에 대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2021년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021) 943억 원 → (2022 안) 6,075억 원(+5,132억 원)

-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은 과거의 규격화된 공간에서, 미래형 교수 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⑤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등 확대

-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의 규모를 2배 확대한다.

※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 (2021) 74억 원 → (2022 안) 141억 원(+67억 원)

-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온국민평생배움터'(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를 내년부터 신규 구축·운영하여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신규) : (2021) - → (2022 안) 35억 원(+35억 원)

-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 (2021) 237억 원 → (2022 안) 258억 원(+21억 원)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2021) 15억 원 → (2022 안) 20억 원(+5억 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또한,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히,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교육부가 미래인재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

-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1. 전년 대비 2022년 예산안 부문별 주요 변동사항
2. 교육부 2022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1. 유아·초·중등교육

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코로나19에 따른 초·중학생의 학습 결손 회복 등을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에게 소그룹(3~5인)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지원한다.
 - 참여 학생은 담임·교과교사가 학업보충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 등이며,
 - 교·사대생(교직과정 포함)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시간(최대 연60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 활용하여 추진

② 교육급여 확대, 학습특별지원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 교육급여 : (2021) 1,030억 원 → (2022 안) 1,222억 원(+192억 원)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교(20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 수요에 자율적 지원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 콘텐츠 비용을 한시 지원 한다.
 -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 명) 1인당 10만 원을 카드 포인트·캐시백 등 방법으로 지원하여 학습 교재비 및 EBS 콘텐츠 비용으로 활용
 -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산규) : (2022 안) 101억 원(중 사업비 315억 원 국고 30% 교부금 70% 부담)

③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 추진에 따라 2021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484개교(702동)의 설계와 공사를 위해 예산 6,075억 원을 편성하였다.
 - 선정된 학교는 2021년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2022년 설계, 공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021) 943억 원 → (2022 안) 6,075억 원(+5,132억 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학교 공간은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 고등교육 지원

① 서민·중산층까지 지원확대 하여 체감 가능한 반값 등록금 실현

- (맞춤형 국가장학금)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390만 원(+22만원),
 - 7, 8구간은 350만 원(7구간 +230만 원, 8구간 +282.5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100만여 명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21) 3조 9,946억 원 → (2022 안) 4조 6,567억 원(+6,621억 원)
 - ※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은 전체 대학생의 하위 50% 수준
 -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참고】 2022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 ① (5~8구간^{연간 56.2만 명}) 5, 6구간 368→**390만원**, 7구간 120→**350만원**, 8구간 67.5→**350만원**
- ② (기초·차상위^{연간 17.5만 명})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 ③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0만 명})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021년	I 유형 다자녀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2022년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셋째 이상	700 (둘째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한국장학재단 출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저금리(2022년안, 1.7%)* 기초를 유지하고

○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 안) 1.7%

○ 특히, 2022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을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 성적기준(C학점 이상) 폐지,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이자면제, 파산청년들의 ICL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등을 통해

- 학생들의 학비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장학재단 출연 : (2021) 1,915억 원 → (2022 안) 2,014억 원(+99억 원)

②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위해 대학재정 지원사업 확대

□ (대학혁신지원)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역량 강화와 인재양성 고도화를 위해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 대학혁신지원(I유형, 일반재정지원) : (2021) 6,951억 원 → (2022 안) 7,350억 원(+399억 원)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기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인재양성 유형을 신설,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 대학혁신지원(II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 (2021) - → (2022 안) 600억 원(+600억 원)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선정된 8개 신기술분야* 컨소시엄을 지속 지원한다.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 ⑥ 실감미디어,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

○ 2021년에는 컨소시엄별로 기업·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규 교육 과정 개발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개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특히, 교육과정 추가개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2021) 828억 원 → (2022 안) 890억 원 (+62억 원)

□ (LINC 3.0) 산학연협력을 통한 대학-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LINC+사업(2017~2021)을 확대·개편하여, 총 134개교를 대상으로 4,070억 원* 규모의 '3단계 LINC (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 (2022 안) (일반대) 총 75개교, 3,025억 원 / (전문대) 총 59개교, 1,045억 원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 (2021) 3,902억 원 → (2022 안) 4,070억 원(+168억 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1~2단계 사업**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해왔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2012~2016, LINC) →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2017~2021, LINC+)

-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한 2단계와 달리, 3단계 사업은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추진역량을 고려하여,

- 산학연협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지원유형을 개편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4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2021) 1,710억 원(4개 플랫폼)→ (2022 안) 2,040억 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 1개 플랫폼 신규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발)(+330억 원)

③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학문후속 세대 양성 지원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박사후연기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고, 대학중점연구소·핵심연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기반을 마련하며, 지역대학·보호분야 등 그간 관심이 적었던 분야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연구를 유도한다.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2021) 4,904억 원 → (2022 안) 5,190억 원(+286억 원)

□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및 우수 연구자 육성을 위해 개인연구 과제당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인문사회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연구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지원단가 : (2021) 20백만 원 → (2022 안) 22백만 원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지원단가 : (2021) 22백만 원 → (2022 안) 24백만 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미래공유형' 유형 신설 : (2022 안) 2과제 x 507백만

※ 인문사회 기초연구 : (2021) 1,851억 원 → (2022 안) 1,883억 원(+32억 원)

□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대학 간·연구자 간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술자원 구독비용을 절감하는 등 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자정보이용권 구독지원을 확대한다.

- 일반저널 8종 및 핵심전자저널 1종 추가로 총 57종의 학술DB 구독 지원

※ 일반저널 구독지원 : (2021) 46종 → (2022) 54종 / 핵심저널 구독지원 : (2021) 2종 → (2022) 3종

※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 (2021) 215억 원 → (2022 안) 268억 원(+53억 원)

3. 평생 및 직업교육

①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성인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 지원인원 및 단가 : (2021) 15,000명 x 35만 원 → (2022 안) 30,000명 x 35만 원

※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 (2021) 74억 원 → (2022 안) 141억 원(+67억 원)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 특히 중단 없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우수이용자 6천 명에게는 추가 35만 원이 제공되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게 된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평생교육 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 (2022 안) 35억 원(순증)

○ ①대학 강좌부터 다양한 평생교육·훈련을 망라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맞춤형 제공, ②각 플랫폼에 산재된 개인의 평생학습·훈련이력 통합 관리, ③학습·훈련 이력을 학점·학위 취득 활용 등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일정 : ISP 수립(~2021.8월) → 플랫폼 구축(2022~2023) → 서비스 운영(2024~)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 (K-MOOC) 인문·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신규강좌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콘텐츠 연계 및 국내·외 석학 강좌 개발 지속 지원한다.

※ 강좌 개발 수(누적) : (2018) 510개 → (2019) 745개 → (2020) 999개 → (2021) 1,055개(예정)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 (2021) 237억 원 → (2022 안) 258억 원(+21억 원)

□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를 확대하였다.

※ 신규 지정 규모 : (2021) 5개 도시 x 9,000만 원 → (2022 안) 8개 도시 x 9,000만 원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2021) 15억 원 → (2022 안) 20억 원(+5억 원)

② 전문대학의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문대학 혁신지원) 전문대학이 산업환경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한다.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2021) 3,655억 원(I·II유형) → (2022 안) 3,880억 원(+225억 원)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전문대학이 기초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성인학습자 등의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전문대학의 미래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지역협업형+신산업선도형) : (2021) 374억 원 → (2022 안) 531억 원(+157억 원)

③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고졸 취업지원 지속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진출 지원한다.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 (2021) - → (2022 안) 28억 원(순증)

-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실습 기회 부족, 자격증 취득률 감소 등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사회진출 어려움 가중됨에 따라,
 - 기업 맞춤형 숙련과정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취업 컨설팅 및 기업 현장 교육으로 취업적격자 채용 연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별 거점훈련센터에서 채용 연계형 사전 직무교육과정(1,050명) 운영, 취업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거점 센터(7개) 중심으로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소규모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직무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취업으로 연계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의 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속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졸업생 포함) 29,400명 대상 1인당 5백만 원*의 장려금 지원한다.

※ 고졸취업연계장려금 지원 : (2021) 1,330억 원 → (2022 안) 1,470억 원(+140억 원)

* (2018~2019) 1인당 3백만 원 → (2020) 4백만 원 → (2021~) 5백만 원

붙임2

교육부 2022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88조 6,418억 원 + 12조 1,773억 원 (2021년 대비)

